

사회통합을 위한 결혼이주여성의 상호문화소통 탐색

김영순* · 최유성**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상호문화소통의 양상들을 살펴보고 상호문화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통합 방법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호문화주의, 상호문화소통, 그리고 상호문화소통역량에 관한 이론적인 논의를 전개하였고, 이주민의 상호문화소통과정을 기술하기 위한 요소들을 추출하였다. 연구참여자로써는 결혼을 목적으로 이주한 중국 및 중앙아시아 이주여성 10인이 선정되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후 수집된 자료를 상호문화소통과정 기술요소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상호문화 소통 양상과 그 의미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은 많은 부분에서 상호문화소통역량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즉,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이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흡수 혹은 적응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에게만 상호문화소통능력을 함양하도록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노력하고 소통할 때 진정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주요어 결혼이주여성, 상호문화소통, 상호문화소통역량, 사회통합

이 연구는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 B405802).

* 제1저자, 인하대, 사회교육, 교수, kimysoon@inha.ac.kr

** 교신저자, 인하대, 다문화교육, 박사수료, yssj97@gmail.com

1. 서론

문화란 한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 상태로 있는 사물에 힘을 가미하여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창조해 낸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렇게 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각 개인과 집단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자연을 변화시켜 만들어 낸 산출물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문화뿐만 아니라 타인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져야 할 당연하고 필수적인 생각이다(김영순 외 2008).

하지만 인간은 이러한 문화의 본질을 오해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자신이 속한 문화를 고수하면서 그것만을 유일한 문화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비문화로 규정하는 식의 사고방식이 일반적이었으며, 지금도 이러한 생각이 문화 간의 소통을 방해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민족 사상이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외국 문화를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배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 간의 소통을 방해하는 이러한 생각은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결혼이라는 제도적 절차로 전혀 다른 문화권에 진입하게 되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타문화로 들어오으로써 겪게 되는 자신 내면의 갈등과 더불어 외부에서 오는 문화적 차별까지 경험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결혼이주여성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그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상호문화주의를 기반으로 한 상호문화소통을 제안하고자 한다. 상호문화주의의 핵심은 바로 소통에 있으며 소통을 위한 상호문화적 기술(intercultural skill)이 강조된다(홍종열 2012). 따라서 이러한 상호문화소통은 개인에게는 물론이고 사회에서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상호문화소통 기술을 습득하여 상호문화소통역량을 키운다면 이주민들이 자신이 겪는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주민과 이

주민 간의 갈등을 해결하여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상호문화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론적 논의를 통해 상호문화소통에 필요한 상호문화소통 역량을 도출하였으며, 그 역량을 기반으로 상호문화소통과정 기술 요소를 추출하였다. 그 후 중국 및 중앙아시아 결혼이주여성 10인을 선택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한 뒤 의미의 유사성을 근거로 범주화하는 방법으로 연구참여자인 결혼이주여성의 상호문화 소통에 대해 파악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논의

1) 상호문화성

상호문화주의는 서로 다른 문화들 사이의 역동적이고 쌍방향적인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이념 또는 철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호문화주의와 상호문화성에 관해 기존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홀츠블레허(Holzbrecher 2004)는 상호문화주의를 사람들이 마주하는 일상적인 현실의 차원으로 대입하여, 한 문화 내의 구성원들 간의 만남과 관계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원동력으로 이해했다. 이러한 역동성은 나의 것과 낯선 것을 동시 또는 중첩시켜 표현하며, 낯선 것과의 접촉은 언제나 나 자신의 지각 모델에 따라 성찰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성찰한다는 것은 타인과 낯선 것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이자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최승은(2015)은 상호문화성의 역동성에 관해 연구하였는데 상호문화성이란 상호문화적 관점으로 타자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호문화적 관점을 지니고 세계를 바라보는 것은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간주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이 관점을 견지하는 것은 자신과 타자 사이의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문화와 문화 간에서 역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성

찰의 과정으로 보았다. 따라서 상호문화성은 문화 간 경계를 허물고, 문화집단의 특성에 중점을 둔 다문화성을 보완하거나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상호문화성을 기반으로 한 상호문화주의는 문화적 상호작용을 허용하는 다문화사회의 기본적인 행동 철학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기섭(2011)은 상호문화성을 다문화성이 추구하는 상이한 문화들 간의 공존을 넘어서 다문화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둔 개념으로 보았다. 또한 상호문화성을 상호 간의 교류와 평등한 상호 관계를 지향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허영식(2015)은 상호문화성을 이미 주어진 언어적·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소통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는 상호문화를 inter-culture와 cross-culture로 구분하였는데, inter-culture는 어떤 문화의 내부자적 관점 및 상대주의적 문화 관점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 간에서 발생하는 이질성에 기반을 둔 상호교류적인 개념으로 에믹(emic)의 관점을 지닌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cross-culture의 의미는 한국어로 '교차문화간'이라고 번역되며 대조문화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두 개 이상의 문화권에서 유사점으로 발견되는 공통적인 개념 및 요인에 관련된 현상으로 에틱(etic)의 관점을 가진다고 보았다(허영식 2015).¹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상호문화성은 초국적 이주가 보편화 된 세계화 시대에서 필수적이며 특정한 문화가 다른 문화들을 지배하거나 혹은 동화시키거나 획일화하는 것을 비판하고, 전 세계의 문화가 상호 균등한 위치에서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상호문화성은 자신이 속한 문화에서 볼 수 없거나 느낄 수 없는 다른 세계관 및 문화를 접하고 배울 수 있게 한다. 최근에는 우리 사회에서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을

1 에믹적 방법의 특징은 현지 제보자가 관찰자의 서술 및 분석의 적합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자로 된다는 것이다. 에믹적 분석이 적합하지 또는 적합하지 않은지의 여부는, 현지인이 실제적이며 의미 있고 적절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서술을 관찰자가 만들어 낼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이에 반해 에틱적 방법은 관찰자가 서술 및 분석에서 사용된 범주와 개념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자가 되는 것이다. 에틱적 설명이 적합한지 아닌지의 여부는 사회문화적 차이점과 유사성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론을 창안해 내는 관찰자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허영식 2015).

쉽게 만날 수 있다. 따라서 한 사회 내에서 살고 있으면서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지닌 사회구성원들이 갈등이나 차별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상호문화성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할 것이다.

2) 상호문화소통과 상호문화소통역량

상호문화소통은 상호문화소통역량이 일상적 차원에서 작동되는 실천행위를 의미한다. 상호문화소통은 초기에는 주로 의사소통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초국적 이주에 따라 다문화사회가 확산됨으로써 의사소통만으로는 문화적 차이를 해결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점차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역량 확보 차원으로 접근되었다. 이런 입장은 시니크롭 외(Sinicrope et al. 2007)에서 잘 나타난다. 이들은 연구를 통해 상호문화소통역량이 초국적 세계시민의 관점을 바탕으로 출발하여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적합한 문화적 역량에 관한 관점으로 확대된다고 주장한다. 궁극적으로 상호문화소통역량이 타자와 함께 삶을 영위하는 일상생활능력의 차원으로 확대되고 그 필요성을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상호문화소통역량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이루어져 왔다. 상호문화소통역량은 상호문화의 대면 상황에서 서로 다른 의미 및 기대를 충족시키는 대인사이에서 요구되는 고도의 소통역량을 의미하며, 성공적인 목표의 충족을 위해 필요한 효과적인 상호작용 또는 맥락에 적절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호문화소통역량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학자들을 통해 연구되어 왔다.

바이람(Byram 1997)은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교류할 경우, 서로의 문화 차이를 인식하고 존중함으로써 의사소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갈등이 감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문화소통역량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바이람은 상호문화소통역량을 먼저 언어능력, 사회언어능력, 담화능력, 상호문화능력 등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는 이 중 특히 상호문화능력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상호문화소통역량을 지

식, 해석 및 연관기술, 발견 및 상호작용 기술, 태도, 비판적 문화 인식 등으로 구분하였다(갈라노바 딜노자 2019). 이러한 상호문화소통역량의 하위요소 중 첫 번째인 지식은 자신이 공유하고 있는 언어나 문화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타인, 즉 소통하고 있는 상대방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 번째인 해석 및 연관기술이란 자국 문화와 타문화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역량을 일컫는다. 셋째, 발견 및 상호작용 기술은 자국과 타문화에 대해 이미 배웠던 지식과 습득한 기술 및 태도를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넷째, 태도는 타인이 사용하는 언어와 그가 지닌 문화에 대한 지식으로 상대방에 대해 공감과 호기심을 가지며, 그러한 공감과 호기심을 실제적인 행동이나 태도로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비판적 문화 인식은 타인에 대해서 배웠던 지식이나 태도를 통해 나타나는 새로운 문화 정체성을 일컫는다. 또한 이런 정체성을 기반으로 자신의 문화와 타문화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도 여기에 속한다.

디어도르프(Deardorff 2004)는 상호문화소통역량을 가지고 피라미드 모델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 모델을 구성하는 요소를 외적 결과, 내적 결과, 지식과 이해, 기술, 필수적인 태도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첫째, 외적 결과란 상호문화 지식, 기술, 태도에 근거하여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행동하고 소통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내적 결과는 준거 틀로써 적응능력, 융통성, 민족 상대주의적 관점, 공감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적응능력은 다른 의사소통 방식, 행동, 새로운 문화 환경에 적응함을 의미하며, 융통성은 적절한 의사소통 방식과 행동 선택, 인지적 유연성 등을 뜻한다. 세 번째는 지식과 이해인데 이는 문화적 자기 지각,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 특정 문화에 대한 지식, 사회언어학적 지각을 포함한다. 넷째는 기술이다. 이 개념은 총체적이고 과정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이는 듣기, 관찰하기, 해석하기 단계와 분석하기, 평가하기, 관련 짓기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필수적인 태도는 존중, 개방성, 호기심, 발견 등의 하위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존중은 다른 문화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며, 개방성은 상호문화를 학습하는 것과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고, 호기심과 발견은

모호함과 불확실성에 대해 용인하는 것을 뜻한다.

아라사라트남(Arasaratnam 2006)은 동양 문화를 중심으로 상호문화소통역량 통합 모델(The Integrated Model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IMICC)을 개발했다. 이 모델은 그를 중심으로 한 연구자들이 현장연구 수행을 통해 2003년부터 2011년간에 걸쳐 개발한 모델이다. 특히 아라사라트남·도르펠(Arasaratnam and Doerfel 2005)은 15개국에서 37명을 선정한 뒤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 수집을 수행했고, 의미론적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그들은 다섯 가지 변수를 도출했는데 동기부여, 상호문화소통 경험, 듣기 능력, 타 문화권 사람들에 대한 공감, 긍정적인 태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변수들은 상호문화소통역량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차원을 제시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모델의 특징은 유럽 지역에서 수행된 연구들과 달리 동양의 맥락을 참조하여 종교성 변수를 추가하였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서구 문화에서 종교는 상호문화소통역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동양 문화에서는 종교가 문화 간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상호문화소통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병준·한현우(2016)는 연구를 통해 상호문화소통역량의 개념 및 구성요소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제시하였다. 수많은 연구자가 상호문화소통역량과 관련된 연구를 내놓았지만, 이들의 연구는 국내외 기관이나 학자들의 다양한 이론들을 종합하고 비교하여 새로운 상호문화소통역량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이병준·한현우(2016)는 관련 문헌 분석을 통해 상호문화소통역량의 구성요소로 43개를 추출하였으며, 유사성이 있는 것을 통합하고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8개의 상호문화소통역량군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상호문화소통역량군과 구성요소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상호문화소통역량 구성요소와 내용

상호문화소통역량군	구성요소	내용
성찰	거리 두기, 판단보류	자신의 생각과 행위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는 역량
의사소통	언어능력, 언어인식, 상황파악, 감정인식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문화적 상황과 맥락을 인식하여 적절한 문화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

갈등관리	상호작용을 위한 학습, 규칙인식, 대인감지	다문화적 상황으로 인한 갈등을 바람직하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
유연성	개방성, 탈중심성	다문화적 상황에서 낯선 것을 침착하고 여유롭게 대처하는 능력
민감성	호기심	다른 사람, 다른 문화를 예민하게 인식하는 능력
문화적 지식	타문화에 대한 지식, 자기문화에 대한 지식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역량
공감	이해능력	다른 사람, 다른 문화를 그들이 느끼는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느끼는 역량
존중	존엄성, 신뢰	다른 사람, 다른 문화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귀하게 생각하는 역량

자료: 윤현희(201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이람과 디어도르프, 그리고 아라사라트남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상호문화소통역량 요소들과 이병준과 한현우의 연구에서 도출된 상호문화소통역량군의 구성요소를 종합하면 다음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상호문화소통역량의 요소 정리

바이람	디어도르프	아라사라트남	이병준·한현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 • 해석 및 연관기술 • 발견 및 상호작용 기술 • 태도 • 비판적 문화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적 결과 • 내적 결과 • 지식과 이해 • 기술 • 필수적인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부여 • 상호문화 소통 경험 • 듣기 능력 • 공감 • 긍정적인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찰 • 의사소통 • 갈등관리 • 유연성 • 민감성 • 문화적 지식 • 공감 • 존중

<표 2>는 지금까지 상호문화소통역량에 대해 논의한 연구자들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인 중국 및 중앙아시아 결혼이주여성들의 상호문화소통과정을 기술하기 위한 분석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결혼이주여성들의 상호문화소통을 분

석하기 위해서는 이민 초기부터 현재까지 생애사적 경험은 물론이고 타인, 즉 정주민이나 다른 이주 배경의 이민자들과 생활함으로써 얻어지는 경험과 인식의 변화가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본국과의 교류와 한국에서의 문화적응을 통해 습득되는 글로벌 태도의 변화 등이 관찰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표 2>에서 정리한 요소들 중에서 이주민의 상호문화 소통 과정을 기술하기 위한 요소들을 추출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이주민들의 개인적인 경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상호문화소통역량 중에서 개인의 경험과 관련 있는 것들은 개인적인 차원으로 분류하였고, 그러한 개인적 차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회구성원들과의 소통이나 관계에 관한 것들은 대인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표 3. 이주민의 상호문화소통과정 기술요소

차원	영역	상호문화소통의 경험 내용 기준
개인적	지식	• 자신이 공유하고 있는 언어나 문화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타인, 즉 소통하고 있는 상대방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지식
	해석 및 연관 기술	• 자국 문화와 타문화를 이해하고 해석했던 경험
	발견 및 상호 작용	• 자국과 타문화에 대해 이미 배웠던 지식과 습득한 기술 및 태도를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활용한 경험
	태도의 경험	• 타인이 사용하는 언어와 그가 지닌 문화에 대한 지식 때문에 상대방에게 행했던 실제적인 행동이나 태도의 경험
	비판적 문화 인식	• 타인에 대해서 배웠던 지식이나 태도를 통해 새로운 문화정체성을 습득한 경험
대인적	이해와 존중	• 자국 문화와 다른 문화권 사람들의 다양함을 이해하고 존중한 경험 • 접촉하는 대화 상대의 다양함을 파악하고 차이점을 인정하며 존중한 경험
	상호작용	•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효과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했던 경험
	대인관계	• 다양한 문화권으로부터 온 사람들과 상호의존적이며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구성한 경험
	공감	•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했던 경험
	자극 선호	• 상호문화적인 상황에서 개인이 지닌 인지적 특성인 자극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일상생활에서 조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적극적인 태도로 대응했던 경험

글로벌 태도	• 초국적 이주자로서 본국과 이주국 사이에서 자신이 문화매개자의 역할을 했던 경험
--------	---

본 연구에서는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초국적 이주 사회에서 이주민이 문화적응을 하는데 필요한 상호문화소통 기술요소를 개인적 차원과 대인적 차원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개인적 차원은 소통의 주체로서 인식과 해석에 중심을 두었고, 대인적 차원은 타인과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관찰에 중심을 두었다. 이 분석 준거들은 이주자인 개인과 이주한 사회의 정주민인 다수자나 혹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다른 이주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문화소통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과 중앙아시아 출신 여성들이 자신의 이주 배경과 초국적 유대 관계를 어떻게 의미화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상호문화소통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뒤 그 양상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석학적 현상학(interpretive phenomenology)을 연구의 주된 이론적 토대로 삼았으며, 사례연구 방식의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사례연구는 ‘어떻게’와 ‘왜’에 관한 연구문제를 탐구하는 데 적절한 연구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사례연구는 일상적 사건들이 가진 의미 있는 특성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복잡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다(Yin 1994; 고미영 외 2009). 이러한 사례연구는 맥락 속에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다양한 자원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사례연구는 깊이 있게 자료를 수집하여 제한된 체계 혹은 사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탐색한다. 또한, 개인, 프로그램, 사건, 집단, 공동체, 현장, 맥락 등과 같이 경계 지어진 체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한다. 즉 사례연구는 제한된 맥락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하는 데 적합하며, 실제 사례, 현상, 또는 사회적 단위에 대해 집중적이며 전체

적인 묘사와 분석 수행하고 이를 통해 하나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현장 중심의 연구이다(Merriam 1988; Wolcott 1992).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수집방법은 심층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얻는 데 유의한 의도적 표집 방법과 눈덩이 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우선 한국 남성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한 후 한국으로 이주한 중국과 중앙아시아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을 선정하였다. 또한 보다 원활한 연구를 위해 심층 면담이 가능할 정도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있는 이주여성들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출신 국적은 중국 한족, 재중동포 및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고, 사회적 관계망에 의한 초국적 유대 관계 경험의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현재 취업 중이거나 혹은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여성들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연구참여자의 특성

구분	출생 년도	입국 년도	가족원	출신국	현재직업
연구참여자 01	1979	2008	남편, 자녀2인	중국(한족)	화장품 가게 운영
연구참여자 02	1971	1999	남편, 자녀2인	중국(한족)	화장품 회사 판매원
연구참여자 03	1971	2007	남편, 자녀1인	중국(한족)	화장품 판매
연구참여자 04	1981	2007	남편, 자녀1인	중국(한족)	의료 코디네이터
연구참여자 05	1980	2008	남편, 자녀1인	중국(재중동포)	회사원
연구참여자 06	1979	2009	남편, 자녀2인	중국(재중동포)	다문화센터 통번역사
연구참여자 07	1977	2007	남편, 자녀2인	중국(재중동포)	인터넷 쇼핑몰 운영
연구참여자 08	1978	2007	남편, 자녀1인	우즈베키스탄(고려인)	이중언어강사
연구참여자 09	1980	2016	남편, 자녀2인	키르기스스탄(고려인)	이중언어강사
연구참여자 10	1986	2011	남편, 자녀3인, 어머니, 오빠2인	우즈베키스탄(고려인)	이중언어강사

연구참여자 10인의 한국 거주기간은 4년부터 21년이며, 현재 대부분 한국인이 경영하는 회사에 근무하거나 개인사업 및 이중언어 강사로 일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이 한국어로 진행되는 심층 면담에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심층 면담을 진행할 때, 되도록 이해하기 쉬운 어휘들을 선별하여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참여자별로 진행된 1차의 면담에서 충분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추가적으로 면담을 수행하여 연구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의미의 유사성을 근거로 범주화 방법과 기오르기(Giorgi 1985)의 분석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기오르기 분석방법은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하는 경험을 개별적인 상황적·구조적 특성과 공통적 특성으로 분리한다. 상황적·구조적 특성을 진술하는 단계에서는 각 연구참여자들이 체험한 현상의 본질, 의미 등을 개인적 차원에서 기술하고, 공통적 특성의 진술 단계는 연구참여자들 개개인이 체험한 현상의 공통적 특성과 의미, 관계 등을 기술하는 단계이다(Giorgi 1985). 즉, 기오르기 분석방법은 상황적·구조적 특성 진술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을 설명해주고, 일반적·공통적 진술을 통해서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통합하여 설명해주는 특성이 있다. 기오르기 분석방법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자는 원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선입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연구참여자에 대한 판단을 중지해야 하며, 연구참여자의 경험세계에 근거한 생생한 체험을 통해 연구자 자신이 연구참여자가 되어 그들의 경험을 편견 없이 수용하고 맥락을 통해 발견되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Giorgi 198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각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적·상황적 구조를 이해하고 이와 함께 전체 연구참여자들의 면담 발화 내용을 토대로 일반적·공통적 구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4. 상호문화소통 분석

본 장에서는 중국 한족계 결혼이주여성, 중국 재중동포계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중앙아시아 고려인계 결혼이주여성 구성원들이 국제결혼이라는 초국적 이주를 선택함으로써 한국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상호문화소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참여자들의 상호문화소통을 분석하기 위해 앞의 <표 3>에서 제시한 분석틀을 적용하였으며 개인적 차원과 대인적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차원은 다시 지식, 해석 및 연관기술, 발견 및 상호작용, 태도, 비판적 문화 인식으로 구분하였으며, 대인적 차원은 이해와 존중, 상호작용, 대인관계, 공감, 자극선호, 글로벌 태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개인적 차원

연구참여자인 결혼이주여성들의 상호문화소통에 대한 다양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시한 개인적 차원의 기술은 지식, 해석 및 연관기술, 발견 및 상호작용, 태도, 비판적 문화 인식 영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개인적 차원의 각 영역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상호문화소통 내용은 다음 <표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5. 결혼이주여성들의 상호문화소통 분석(개인적 차원)

영역	상호문화소통 내용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생활과 자녀 양육 등을 위해 한국어 습득을 당면시함. • 자녀 양육이라는 문제를 마주하면서 자기주도적 배움의 주체성이 발현됨.
해석 및 연관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문화와 한국 문화 사이의 아주 사소한 차이 때문에 문화적 갈등을 겪음. • 특히 자녀 양육법이나 교육법에 대해 내적·외적 갈등을 경험하는데 자신의 방법을 고수하는지 한국의 방법을 따르는지는 개인적 차이에 기인함.
발견 및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언어의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언어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자신의 필요보다는 가족 또는 타인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경우도 있음. • 하지만 자신의 이중언어능력을 한국 사회에서 적용하고 생활하는데 있어 장점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음.
태도의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모국어를 자녀에게 교육함으로써 자녀가 이중언어 가능자로 살아가도록 요구함. • 자신의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모임에서 차별을 당했으며 그 후 한국 사람과의 모임을 꺼리게 되었음.
비판적 문화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차별을 비판함. • 같은 결혼이주여성임에도 출신국이나 피부색에 따라 그 안에서 또 다른 차별을 경험함. • 한국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모적·언어적 차이로 인한 차별을 여전히 경험하고 있음.

(1) 지식 영역

지식 영역에 해당하는 상호문화소통의 경험은 자신이 공유하고 있는 언어나 문화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또한 타인, 즉 소통하고 있는 상대방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에게서 나타난 지식 영역으로는 한국어 능력이나 육아와 같은 일반적인 지식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6급 땀는데 사실은 말은 하나도 안 되어요. 쓰기도 잘 못 해요. 자기가 문장만 드는 것도 힘들고 읽으면 대충 다 알아 거의 다 알아요. (연구참여자 02)

연구참여자 02는 한국으로 시집오면서 한국어를 습득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을 본 뒤 6급 자격을 획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 02는 여전히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한국어능력시험이 일반적인 한국어 지식을 확인하는 시험이지만, 한국에서의 가정생활, 자녀양육 등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한국어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민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한국어 지식을 습득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책 봤어요. 인터넷도 찾았어요. 책 보고 얘기 키워요. 양육법이 우리나라에서 배웠던거와 달라서요.” (연구참여자 03)

연구참여자 03은 한국에 와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 혼란을 경험했다. 자신의 본국과 양육법이 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한국에 이주해 온 이상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려고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양육법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거주국에서의 생활을 위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지식 습득을 위해 이민자들은 직면하는 여러 가지 필연적인 책무 앞에서 자기주도적인 배움의 주체성을 보여주었다.

(2) 해석 및 연관기술 영역

해석 및 연관기술은 자국 문화와 타문화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었던 경험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주로 일상적인 문화 즉, 육아나 교육환경 등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에 대해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어머니랑 문화 차이도 있고요. 시어머니랑 다투는 것도 있어요. 애들 키워서도 만약 애들 열이 나면, 중국 우리 어렸을 때는 열이면 덮어서 땀내야 돼요. 근데 한국은 다 벗고 열이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해요. 근데 어떤 때는 시어머니들이 옷 벗어야 된다고. 근데 중국 며느리는 옷 입어야 된다고, 그 때는 좀 다투기도 그래요.” (연구참여자 01)

연구참여자 01은 자신과 시어머니 간의 문화 갈등을 경험했다. 자녀가 고열이 날 때 중국에서는 몸을 모두 감싸서 땀을 내야 하는 방식으로 열을 내렸지만, 한국에서는 옷을 모두 벗기고 몸을 차갑게 해서 열을 내리는 방식이었는데 이로 인해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었다. 이처럼 많은 결혼이민자들이 자신의 문화와 한국 문화의 사소한 차이 때문에 갈등을 경험하며, 그 상대와의 관계도 나빠지는 것을 경험한다.

“(그러면 학교도 이런 쪽으로 보낼 생각이 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아니요. 이런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미술 어려워요. 이것 ... 이런 사람이, ... 우리 일반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하고 우리들의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냥 취미만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03)

“중국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보다 더 힘들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공부해요. 그래서 나 그거 보는 거 아이 우리 아들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저도 중국식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는 시간 좀 줄이고 공부 시간 좀 많이 하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 이런 관계니깐 아이들이 다 그렇게 놀아요. 저도 방법 없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04)

연구참여자 03은 교육법에 관해 고민이 많았지만 자기주도적으로 자신만의 교육법을 선택했다. 연구참여자 03은 자녀가 미술에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직업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취미로 할 것을 권유했다. 그녀는 자신들과 달리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가 예체능에 재능이 있다면 전적으로 지원을 하여 전문 예술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교육관을 유지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연구참여자 04도 역시 중국에서의 교육법과 한국에서의 교육법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했다. 중국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학습에 사용하는데 한국에 와서도 중국에서처럼 자녀를 교육시키려다 보니 아이와 갈등을 겪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의 교육 현실과 상황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 영역에서 보여준 연구참여자들의 사례를 통해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다양한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고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한 갈등 속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거주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것을 따르기도 했지만, 모국 문화와 거주국 문화 사이에서 주체적으로 판단하여 선택하는 모습도 보였다.

(3) 발견 및 상호작용 영역

발견 및 상호작용 기술은 자국과 타문화에 대해 이미 배웠던 지식이나 습득한 기술 및 태도를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활용한 경험을 의미한다. 이는 특히 앞서 지식이나 해석 영역에서 얻어낸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그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집에서는 중국어로 대화하세요? 아니면 한국어로 대화하세요?) 중국어로는… 하고 싶은데, 그 대화 좋은 기간은 놓치고, 우리 처음에는 시어머니하고 큰 아버지 같이 살았어요. 한국 식구들 더 많았으니깐 그때는 그렇게 살았으니깐 그때는 처음에는 한국말 써라. 중국말 사용하지 마라. …(중략)… 제가 중국어 쓰게 되면 또 잔소리 또 나오겠지.’ 무서운 거 아니지만 그래도 잔소리 듣기 싫

었으니깐 그래서 천천히 한국말 쓰게 되었어요.” (연구참여자 06)

연구참여자 06은 집에서도 자신의 모국어인 중국어를 사용하고 싶어했다. 하지만 함께 거주하는 시어머니와 큰아버지가 중국어를 사용하지 말도록 요구했고, 자신도 계속 중국어를 사용하게 되면 시어머니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가족 간의 관계도 나빠질 것을 걱정하여 한국어를 배우고 사용하게 되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모국어를 자신의 필요 때문이라기보다는 타인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경우였다. 하지만 그녀는 타인의 요구로 습득한 한국어이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에 오시기 전에 러시아에 계시거나 키르기스스탄에 계시거나 있을 때도 한국어 강사를 하심?) 했습니다. 저는 원래 2002년도에 졸업한 다음에 여기 한국에도 온 적 있었어요. 연수 프로그램 통해서 연세대에서 언어 연수프로그램 받았고 2003년도부터 계속 러시아 이사 갈 때까지 비슈케크대학 한국어 학과에서 강사를 맡았습니다. 계속 꾸준히 한국어를 함. 그래서 우리 키르기스스탄에 교육원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연구참여자 09)

연구참여자 09는 결혼 이주 전, 키르기스스탄에 있을 때부터 한국어 강사로 활동했다. 그녀는 한국으로 이주해 온 이후에도 자신의 언어능력을 활용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이를 볼 때 결혼이주여성이 이중언어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고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4) 태도의 경험 영역

태도의 경험 영역은 이주민의 상호문화소통과정 기술 영역 중 사회적 행위와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타인이 자신에게 보이는 언어와 태도를 보면서 실제로

했던 행동이나 태도의 경험을 의미한다.

“저는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항상 우리 큰딸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냐고. 누가 엄마가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면 재들 신경 쓰지 마세요. 너희들 외국 사람이 중국말 하면 오히려 “어? 너는 중국말 잘한다.” 오히려 더 좋아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러지 말라고 해요.”(연구참여자 02)

연구참여자 02는 자신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딸에게 당당하게 생활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엄마의 나라 언어인 외국어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생각하라고 조언하고 있었다.

“우리 딸 초등학교 때 모임이 있었잖아요. 회비도 내고 그러는데 저는 몇 번 했어요. 회비도 내고. 애들 솔직히 애들끼리는 똑같아요. 차별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부모로부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애들 집에 가서 ‘저 누구 누구 엄마가 중국 엄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너희 엄마가 중국 엄마야 이렇게 차별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후략).” (연구참여자 03)

“내가 중국 엄마다, 무식하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냥 그하고 이야기 안 해요. 내가 당신보다 잘하니까 너랑 이야기하기 싫다 어쩔래, 우리 솔직히 말하면 우리 저소득 가정이었어요. 다문화 가정 대부분이 어렵게 살잖아요. …(중략)… 왜, 이것 신청하면 선생님부터 알잖아요. 선생님부터 저 애기 집이 못 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가 봐 우리 남편부터 그것 신청하지 말래요.”(연구참여자 03)

연구참여자 03은 자녀 학부모 모임에서 불편하고 불쾌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 모임에 나온 일반 학부모들이 노골적으로 자신을 무시하는 것을 느꼈고, 2차, 3차로 이어지는 한국의 회식 문화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이후 학부모

모임을 잘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는 자신이 다문화가정임을 드러내면 오히려 더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임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연구참여자 02와 연구참여자 03의 사례를 통해 정주민이 이주민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가 이주민의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사회적 관계가 마찬가지이겠지만, 정주민과 이주민의 관계에서는 정주민이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정주민이 이주민을 불편하게 대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이주민들은 정주민에 대해 좋지 않은 태도를 가지게 되고 더욱 고립되게 된다. 따라서 정주민이 상대방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주민들에게 공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상호문화소통역량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

(5) 비판적 문화 인식 영역

비판적 문화 인식은 개인적 차원의 영역 가운데 마지막 영역이다. 이는 타인이나 타문화에 대해 배웠던 지식이나 태도를 통해 새로운 문화정체성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적용하면서 자신의 문화 배경과 새로운 한국 문화 사이에서 정체성 협상을 진행했다.

“우리는 완전히 한족. 왜 조선족은 엄마 초청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한 조선족하고 친정엄마, 형제, 자매, 초청은 1년 여기서 머무는 시간은 1년짜리, 동포들은 5년짜리 나오는데. 왜 우리들 초청하는 것 조건이 이렇게 많고 여기다 3개월 밖에 못하고 차별이 심해요. 우리 중국에서 조선족도 솔직히 차별이 없었는데. 왜 똑같이 하는데. 왜 우리는 한국 사람한테 대우받는지.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선족 친구 많아요.” (연구참여자 02)

“아무리 욕까지 하고 중국 사람들 제일 싫다고 그래 가지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나중에 기사 아저씨한테 “조용해요.” 이렇게 조용히 하라고 어떻게 손님하

고 기사님하고 그 아저씨에게 “그만하라고”하고 말하지 말라고 하고 혼냈어요. 내가 혼낸 건 아니고 손님이 혼냈어요.” (연구참여자 02)

“고려인들도 자기 사고방식을 조금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고려인들은 보통 구소련에서 온 사람이죠. 거기서 아무래도 사회 오래 전부터 사회주의, 자라서 살기 때문에 약간 좀 사고방식이 달라요. 여기 한국에서 아무래도 자본주의에 방향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좀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해야 할 생각이 꼭 있어요. …(중략)… 여기 계속 살려면 약간 좀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09)

“불편한 점은 지금은 우리 뭐 처음 왔을 때 제가 우리 아버지께서 얘기 했었는데요 우리 고향에 가도 우리 그 쪽에서는 남이고 한국에서 한국사람들처럼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처음 와보니까 여기서 우리 남이에요. 사실은, 우리 여기서도 외국인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후략.” (연구참여자 10)

연구참여자 02는 친구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차별적인 문화를 비판했다. 즉, 한국 내에서 조선족과 한족 모두 결혼이주여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중국 한족을 차별하는 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즉, 그녀는 똑같은 중국 국적인데도 왜 한족과 조선족을 차별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한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 02는 버스에서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했는데,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중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온갖 욕설을 들어야 했다. 버스 기사의 도움으로 상황이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자신이 왜 그런 상황을 겪어야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그녀는 한국 내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09는 고려인과 한국 문화에 대해 숙고하였다. 그녀는 자신이 고려인이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앞으로 계속 한국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에 적응하고 한국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10은 자신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한국에서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사람들에게 외국인으로 취급받는 것과 자신의 모국에서조차도 타인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대다수의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 이주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그들은 한국에서의 삶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문화를 포기하였다. 즉, 그들은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한국인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많은 정주민들은 그들을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저는 사실 여기 와서 다문화 가정? 그 왜 명칭을 달아 줘 가지고 저 이름을 왜 타이틀을 달아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어 우리 그냥 이렇게 외국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면 되지 뭐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 이거를 왜 달아줬는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별명을 달아준, 좋은 별명도 아니고 그게 다 다문화 가정 이라면 제가 그래도... ..(중략)... 그 왜 이름을 다문화... 저희는 ‘다문화 가정입니다’ 하게끔 만드는지...” (연구참여자 07)

연구참여자 07은 “다문화가정”이나 “이주여성”이라는 명칭에 대해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외국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이주여성을 다문화가정이나 이주여성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것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이주여성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비판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07이 제기한 문제는 숙고해 볼 가치가 있다. 정주민들이 편의에 따라 붙인 명칭이 이주민들에게 낙인처럼 찍혀서 차별을 받고 있다면 이러한 명칭도 바꾸거나 폐

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솔직히 제가 그래요. 저처럼 이렇게 좋아해서 만나서 결혼한 사람도 많지만 또 소개로 열 몇 살, 스물 몇 살 차이 만난 사람들은 그게 잘 행복하게 산다는 게 보장이 제가 보기엔 참 어려운 거 같아요. …(중략)… 그 여기 노총각들이 자기가 나이 50인데 20대 자기 딸 같은 사람하고 산다는 게 행복해 질 수 있을까요? 그렇담 그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도 행복해 질 수 있을까요?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그 문제인 거 같아요. 물론 나라에서 해주면 물론 좋겠지만. 저희 자신부터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런.” (연구참여자 07)

또한 연구참여자 07은 한국의 국제결혼 문화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자신도 국제결혼 당사자였지만 나이 차이가 많은 한국 남자와의 결혼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었다. 그녀는 ‘행복’을 키워드로 한국의 국제결혼문화를 비판하였다. 그녀는 이러한 행복의 주체를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에게까지 확장시켜 바라보고 있었으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시작한 국제결혼이 결국은 불행으로 끝날 수도 있음을 걱정하고 있었다.

2) 대인적 차원

대인적 차원은 이해와 존중, 상호작용, 대인관계, 공감, 자극선호, 글로벌 태도 등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인적 차원의 각 영역에 대한 상호문화소통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결혼이주여성의 상호문화소통 분석(대인적 차원)

영역	상호문화소통 내용
이해와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과의 갈등을 필연적으로 경험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거나 다른 방식(분가 등)으로 해결하는 경험을 함.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이나 다른 사람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자녀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강조함. • 언어가 조금 다르다는 문제가 드러남으로써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없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해 더 선호하게 됨.
대인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이라는 신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어려워함. • 하지만 종교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통해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정주민 보다는 다른 이주민들과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음.
공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외국인이고 이주민이기 때문에 다른 이주민에 대해 동병상련의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자신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함.
자극 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들에게 엄마의 언어를 가르쳐 줌으로써 자녀들이 상호문화적 자극을 받게 해주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함.
글로벌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주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이 모국은 물론 거주국에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두 나라 사이의 갈등에 대해 걱정하고 염려함. •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가 거주국과 모국 사이에서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1) 이해와 존중

대인적 차원에서 이해와 존중 영역은 자신과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함을 이해하고 존중했던 경험이나 접촉하는 상대방의 다양함을 파악하고 차이점을 인정하며 존중했던 경험을 의미한다.

면담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주로 시댁이나 남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경험하는데 그러한 갈등을 겪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부모들을 지금 가끔씩 만나니깐 좋아하죠. 시어머니도 좋아하고, 시어머니도 계속 며느리 보면서도 힘들지…, … 지금은 저는 적응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불편했는데, 여러 가지 불편했어요. 근데 지금 괜찮았어요.” (연구참여자 01)

“집에서 있을 걸요.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싸운 적이 있어요. 애기 출산한 후에 2주일쯤에 애기 배꼽에 끼워 있는 것 떨어졌어요. 내가 무서워요. 이것 때문에 남편과 시어머니와 싸웠어요. 왜 이것 떨어졌어요? 원래 괜찮아요. 떨어져야 돼요. 나는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남편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큰

소리 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하하 웃음)” (연구참여자 03)

연구참여자 01은 결혼 초기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했다. 하지만 자신과 시어머니 사이의 문화 차이로 불편을 경험했으며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다. 이후 분가를 했는데 분가 이후에는 오히려 시어머니와 관계가 회복되는 경험을 했다.

연구참여자 03은 신혼 초기 아이 출산과 육아 문제 때문에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었다. 하지만 곧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위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경험할 때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상황을 해결 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2) 상호작용 기술 영역

상호작용 기술 영역은 이주민들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효과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제공했던 경험을 의미한다.

“애들 여기서 유치원 가야 되니깐 그냥 중국말 처음에 중국말만 하면 애들 유치원 가면 힘들어서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말 좀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애들 아빠한테도 소통해야 되니깐...” (연구참여자 01)

연구참여자 01은 유치원에 가게 된 아이가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어를 가르쳤다. 또한 아빠와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다고 한다. 그녀는 자신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정확한 발음 등을 가르쳐 줄 수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아이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결심을 보였다.

연구참여자 01의 경우처럼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녀들에게 엄마의 언어보다는 아빠의 언어 즉 거주국의 언어를 교육시킨다. 이는 아이가 한국에서 불편함이 생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상호문화소통역량의 측면에서 본다면

결혼이주여성들이 일방적으로 거주국의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는 이주민과 정주민 모두가 상대방의 언어를 배워서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가 ○○동 살 때. 그런데 그분이 한 분이 아 어떻게 말하다가 “저희 중국 사람, 중국에서 왔어요.” 하니깐 다른 분들 아 그러세요? 하고 마는데 어떤 한 분이 동네 사람인 거 제가 아는데 그분이 어 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었나? 뭐 이게 보는 시선이 전이랑 편안하지 못하고 약간 보는 빛이 별로 안 좋아. …(중략)… 그리고 제가 그 동네에선, 아파트에서도 만났는데 피하는 거야.” (연구참여자 07)

연구참여자 07은 잘 지내던 주변 사람과 어색한 관계가 되는 경험을 했다. 그녀는 어느 한 주민과 동네에서 잘 지내는 사이였지만, 자신이 결혼이주여성인 것을 안 이후부터는 그 주민이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눈빛으로도 피하는 것을 경험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볼 때,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사람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었다. 이는 많은 정주민들이 이주민에 대해 연중예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주민들이 이주민들에 대해 갖고 있는 적대감과 거부감을 줄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주민뿐만 아니라 정주민도 상호문화소통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다양한 문화권으로부터 온 사람들과 상호의존적이며 긍정적인 관계를 구성한 경험을 의미한다.

“어렸을 때는 많이. 학교에서 청소같은 거 참여하고 몇 번 갔는데. 그것은 안 갔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다 한국 사람, 저만 외국 사람이어서 가지고 그냥 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어렸을 때는 적어도 학교 가니깐 그때는 다 알고 있어요. 중학교는 거의 안 가니깐 아마 대부분 대부분이 우리 큰딸 엄마가 외국 사람인 것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연구참여자 02)

“응, 알아요. 같이 차 마시고 한두 번 적어(밖에) 없어요. 거의. 만나서도 말도 잘 안 해요. 어떻게, 친해요.” (연구참여자 03)

연구참여자 02는 아이가 어렸을 때는 학교행사나 모임에 종종 참여했지만 자신만이 외국인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점점 모임에 가는 횟수가 줄었다. 그래서 중학교를 진학한 큰 아이의 친구들이나 선생님은 자신이 외국인이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고 했다.

연구참여자 03은 아이의 친구 엄마들과 함께 모였던 기억이 한두번 밖에 없었다. 그래서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한다.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하세요? (네) 교회에는 같은 고려인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많아요. (서로 정다운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어린시절 시간을 같이 지냈던 분도 계실테고.) 아니요. 어린시절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잘 지내고 있어요. …(후략)” (연구참여자 10)

연구참여자 10은 종교활동을 통해 좋은 대인관계를 맺고 있었다. 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기회가 많았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 친구와 지인을 만들 수 있었다.

위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대다수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정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모임보다는 자조모임이나 종교활동을 통해 이주민들과 서로 소통하고 있었다. 즉, 정주민인 한국 사람들과의 소통보다는 같은 국적이나 같은 이주민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소통에 더 안정감을 느끼고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4) 공감 영역

공감 부분은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험을 의미한다.

“(상담 통역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 있어요?) 음… 그 분 슬펐던 일, 제가 같이 그랬게 느꼈으니깐 저도 통역하고 나서는 마음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니깐 ‘아 이 사람이 제가 어떻게 도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야 되나. 제 힘으로 어떤 면으로 해줘야 되나.’ 그렇게 해서 제가 업무 외에도 사람들에게 도와줬었어요. 개인 가정으로.” (연구참여자 06)

연구참여자 06은 상담업무를 진행하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던 사람들에게 대해 공감하고 도와줬던 경험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힘든 처지였지만 더 힘든 상황의 사람들에게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도와주려고 하였다. 즉, 자신이 이주민으로서 겪었던 힘들고 어려움이 다른 이주민들에게 투영되어 공감의 감정을 불러 일으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자극 선호 영역

자극 선호 영역은 상호문화적인 상황에서 개인의 인지적 특성인 자극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일상생활에서 조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적극적인 태도로 대응했던 경험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극 선호는 중국 한족 출신 결혼이주여성에게서만 등장했다.

“(그러면 ○○○ 씨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은 언제부터 엄마 나라 언어를 가르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애들 말 알아들었을 때 하면 더 좋을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01)

연구참여자 01은 아이들에게 엄마의 언어를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녀는 엄마의 언어를 배움으로써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상호문화적 자극

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연구참여자는 아이들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부터 엄마 나라의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6) 글로벌 태도 영역

글로벌 태도 영역은 결혼이주여성이 초국적 이주자로서 본국과 이주국 사이의 문화매개자 역할을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북한 때문에 전쟁 일어날까 봐서 빨리 중국에 와요.” 남편 한국 사람이니까요. 그냥 함부로 못 하고 중국 가면 만약에 한국 관계 안 좋으면 남편 거기서도 못 살잖아요. 그때 기간 이런 갈등? 아니면 그런 거 문제에서 사실 우리한테 진짜 가까운 관계에 있는 거예요. …(후략).” (연구참여자 03)

연구참여자 03은 사드 문제로 한국과 중국이 갈등을 겪었을 때, 중국에 있는 가족들과 한국의 가족들 사이에서 걱정하고 염려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녀는 결혼이주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이 중국과 한국 모두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두 국가 사이의 갈등을 염려하고 그러한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는 진짜, 그 한국 와서 센터에 가면은 다 똑같이 한국말 배우고 누구누구는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개발해서 일할 수 있게 하고, 또 뭐 할 수 있는지 조사해서 연결해주면 결국 우리도 좋고 또 나라도 좋은 거예요. 우리 인재들이 많은데 왜 인정 안 해줘요. 인정해주고 잘 살 수 있다고 해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후략)” (연구참여자 04)

연구참여자 04는 중국에서 뛰어난 인재가 이주해 오지만 한국이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녀는 외국의 인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단지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주해 온 외국 인재들

을 인정해 주고 그들이 한국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더 유익하다고 말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거 하면서 느꼈는데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면은 그 부모도 그렇고 꼭 이 교육을 들으면 좋긴 할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한테 모르고 있다면 어... 한 개 나라말만 갖고 가는데 알고 있으면 우연하게 엄마 나라말을 어릴 때 부터 그냥 공부를 안 하고 놀이하면서 어... 가르칠 수 있으니까 아이가 어릴 때 부터 두 개 나라말을 자연스럽게 갖고 가니까 아이 성장에는 아주 나중에 가서 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연구참여자 05)

연구참여자 05는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녀가 이중언어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본국과 거주국을 이어주는 가교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을 통해 초국적 이주의 시대에 결혼이주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상호문화소통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상호문화소통의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이론적 논의를 통해 도출한 상호문화소통과정 기술요소를 분석 도구로 삼았으며, 그 기술요소를 개인적 차원과 대인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적용한 뒤 분석하였다. 이때 개인적 차원은 이주민들을 소통의 주체로 바라보며 그들이 경험하는 경험에 대한 인식과 해석에 중점을 두었고, 대인적 차원은 이주민들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개인적 차원은 지식, 해석 및 연관기술, 발견 및 상호작용, 태도, 비판적 문화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면담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가족들과 갈등을 겪기도 하고 이주민으로서 정주민의 차별과 무시에 좌절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정주민보다 더 열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적응하면서 나름대로 삶의 방식을 체득하였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을 상호문화 소통의 주체로 인식하면서 주어진 문화와 환경을 해석한 뒤 주도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사례들에서 숙고해야 할 문제는 이주민들이 정주민 즉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겪는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갈등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갈등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이주민이 겪는 갈등은 조금 차원이 다르다. 이들이 경험하는 갈등은 일방적인 변화의 강요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주민인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서의 삶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문화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대다수의 정주민들은 이주민들을 여전히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즉, 언어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외국인’ 취급을 하고 있었으며 이주민들을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이라는 프레임에 가둠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난 갈등은 이주여성들의 이해와 순응으로 인해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갈등은 일방의 희생만으로 봉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또한 이처럼 이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변화와 순응만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사회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대인적 차원은 이해와 존중, 상호작용, 대인관계, 공감, 자극선호, 글로벌 태도 등을 하위요소로 갖고 있다. 면담을 통해 살펴본 바로는 우선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경험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정주민 또는 다른 이주민들과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정주민보다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이주민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였으며 자신이 이주민으로서 겪었던 힘들과 어려움을 다른 이주민들에게 투영시킴으로써 큰 공감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이중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본국

과 거주국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려는 자세도 보여주었다.

대인적 차원의 사례를 통해 고찰해야 할 문제는 이주민들이 정주민보다는 다른 이주민들과의 관계 맺기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공식적인 관계, 즉, 자녀 학교의 학부모들이나 거주지의 주민들과 관계를 맺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부담을 느끼거나 꺼려하는 경향이 많았다. 하지만 종교활동이나 자조모임 등을 통해서 같은 국적 출신의 동포나 다른 국적의 이주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과의 관계에 더 큰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아무런 장벽 없이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주민과 이주민 사이에 생긴 장벽을 해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상호문화소통 양상과 의미의 탐색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을 이루는 것에 대해 고찰하는데 있다.

급속하게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통합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이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점차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이로 인한 갈등과 분열의 가능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상호문화주의를 제안했다. 상호문화주의는 서로 다른 문화들 사이의 역동적이고 쌍방향적인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이념 또는 철학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진정한 상호문화주의는 다수자-소수자, 선주민-이주민의 이분법적 프레임을 해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문화주의의 실천 주체는 소수자, 이주민 등 일부 계층이 아니라 다수자와 정주민을 포함하여 다수자-소수자, 정주민-이주민 모두에게 상호 주관적이어야 한다.

다문화사회에서 다수자와 소수자, 정주민과 이주민이 사회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타자를 사랑하고 포용하며 그들과 연대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수자가 소수자를, 정주민이 이주민에게 행하는 호혜적 관계가 아니라 두 집단의 구성원들이 동등한 위치에 상호문화성을 교환하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사회에서 다름을 지닌 타자들은 연대의 세계화를 인정하며, 이 연대

에서는 타자 윤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연대성의 토대는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아닌 차이에 대한 인식에 있으며, 타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나와 타자 사이에 존재하는 낯섦과 고정관념의 경계를 허물고 연대적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연습이 다수자, 소수자, 정주민, 이주민 모두에게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연대는 구성원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타자와 나의 상호작용을 통해 창조된 새로운 공간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연대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책임을 져야 하는 윤리를 갖게 하며, 타자와의 공존과 통합을 위하여 수용, 이해, 소통에 이르는 일련의 상호작용의 기초로 작동된다. 타자와 주체가 상호작용을 수행한다는 것은 상호 간의 협력적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데 이러한 연대는 나와 타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과 관계의 통합으로 이어진다.

상호문화주의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연대를 기반으로 한 소통이며, 이러한 소통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이 상호문화적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호문화소통은 개인은 물론 사회에서도 그 의미가 크며, 개인의 상호문화성 선택은 구성원 간의 대화 등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상호문화주의는 소통과 대화를 통해 구성원들 간의 규제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연대를 맺고 그 연대를 유지시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상호문화소통에 있어서 상호문화역량은 중요한 개념으로 평가된다. 이 역량은 다문화사회에서 타자를 올바르게 인식하며,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타자와의 연대를 위해 필요한 능력이다. 또한 타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은 단순히 일상생활에서의 소통과 교류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역량의 공유를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위해 필요한 이상적인 사회통합은 이주민들의 적응과 동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주민이 그들과 연대하고 그들이 지닌 다양성을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발현하게 하며, 그들이 주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할 때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사회통합은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과는 거리가 멀다.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다양성에 기초한 갈등과 타협의 변증법에 따른 사회 발전의 원심력을 부정하고, 한국인이라는 일

체감의 구심력만을 강조하는 인위적 통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적응(insertion)과 동화(assimilation)와 달리, 통합(Integration)은 상호평등을 전제로 하는 공존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즉, 통합은 이주민들이 문화적, 사회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호 인정과 다양성의 존중을 기반으로 공존을 추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통합은 이주민들을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성원으로 받아들이면서 상호 호혜적 관점에 기반을 둔 공존과 연대를 모색하고, 공동체적 성원으로서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며, 상호주관성에 근거한 상호 인정이 이루어져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져 온 다문화 사회통합정책은 이주민들을 한국 사회와 문화로 적응시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통합은 이주민들을 한국사회의 이질적인 존재로 타자화했고, 그들을 한국 사회에 일방으로 흡수되어야 하는, 혹은 적응해야 하는 수동적 존재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태도를 버리고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모두가 역동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상호문화성을 기반으로 소통하고 연대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우리의 사회통합 정책은 이주민뿐만 아니라 다수자, 소수자, 정주민, 이주민 모두의 상호문화소통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다문화사회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일 것이다.

교신: 최유성(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수료)(yssj97@gmail.com)

Correspondence: Yu Seong Choi(Ph.D, Candidate, Department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ha University)(yssj97@gmail.com)

2020.07.15 접수, 2020.07.21 심사, 2020.11.23 게재확정

참고문헌

- 갈라노바 딜노자, 2019,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역량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미영 외, 2009,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에서의 입과워먼트 실천경험에 대한 질적사례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1, 63-99.
- 김영순 외, 2008, 문화의 맛과 멋을 만나다, 한울출판사.
- 윤현희, 2019, 초등교사의 탈북학생 교육 경험에 관한 상호문화교육적 의미 탐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병준·한현우, 2016, 상호문화역량의 개념 및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11(6), 1-24.
- 정기섭, 2011,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점에서 본 상호문화역량, 교육의 이론과 실천, 16(3), 133-149.
- 최승은, 2015, 상호문화교육의 관점에서 본 초등교사의 음악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영식, 2015, 문화적 차이, 다양성에 관한 담론과 함의: 독일과 유럽의 동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논총, 25(3), 169-194.
- 홍종열, 2012, 유럽의 다문화사회와 상호문화교육에 관한 고찰, 인문과학연구, 30, 383-411.
- Arasaratnam, L. A., 2006, Further testing of a new model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23(2), 93-99.
- Arasaratnam, L. A., and Doerfel, M. L., 2005,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Identifying key components from multicultural perspectiv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2), 137-163.
- Byram., 1997,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Clevedon, UK: Multilingual Matters.
- Deardorff, D. K., 2004, The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of intercultural competence as a student outcome of international education at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Unpublished dissertation,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Raleigh, 8.
- Giorgi, A., 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ittsburgh, PA: Duquesne University Press.
- Holzbrecher., 2004, interkulturelle pädagogik. 정기섭 옮김, 상호문화교육의 이해: 교사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 2014, 성남: 북코리아.
- Merriam, S. B., 1988,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A Qualitative Approach*. San Francisco: Jossey-Bass.
- Sinicrope, C., and Norris, J., and Watanabe, Y., 2007, Understanding and assessing intercul-

- tural competence: A summary of theory, research, and practice(technical report for the foreign language program evaluation project).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6(1).
- Wolcott, H. F., 1992, Posturing in Qualitative Inquiry. In M. D. LeCompte, W. L. Millroy, and J. Preissle (eds.), *Th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Orlando, Fla.: Academic Press.
- Yin, R. K., 1994, Discovering the future of the case study method in evaluation research. *Evaluation Practice*, 15(3), 283-290.

Exploring Intercultural Communication of Married Migrant Women for Social Integration

Young Soon Kim* · Yu Seong Cho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spect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of married migrant women and to examine ways of social integration. To this end, the theoretical discussions were conducted and elements were extracted. Ten Chinese and Central Asian migrant women were selected as participant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fter that, the data were compared with the technical elements of th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process to explore the aspect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s a result, the women owned that capability, and continued to make efforts. This led to the following implications: that is, true social integration requires efforts to recognize and respect individuals while maintaining the ethnic identity, rather than forcing migrants to absorb or adapt unilaterally. In addition, they will not be forced to cultivat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kills alone, but true social integration will be achieved when work together and communicate.

Keywords Married Migrant Wome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apability, Social Integration.

* First-Author, Inha University, Professor, Social Studies Education, kimysoon@inha.ac.kr

** Corresponding Author, Inha University, Ph.D. Candidate in the Department of Multicultural Education, yssj97@gmail.com